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 교회 공동체는 협의와 일치로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사목위원회는 9월 16일(주일) 교육관 그리스도왕 홀에서 재직 위원 48명중 참석위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계철(라파엘)본당 주임 신부님을 모시고 3/4분기 확대 사목위원회의 회순에 의하여 사목회장 시작기도와 총무의 각분과 종합서면 월례보고에 이어 주임신부님의 말씀이 있었다.

먼저 사목회장은 '12대 신임사목회장과 여러 분과장이 선임된 현재 11대 사목위원회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회의가 되겠습니다. 본당 조직기구가 변경되었으니 분과업무 분장이 신설과 소멸될 사목회직원본을 그대로 두고 개정하여 부칙으로 첨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11대 사목위원회는 현재 회칙대로 10월에 해단 겸하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란 말에 이어 주임신부님께서 '11대 사목위원회가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달 해단식을 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2대 사목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출범하는 것으로 후보에 정식 공지하여 교중미사 중에 선임 인명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목위원회는 시대적 소수의 교우들이 내가 아니면 될 수가 없다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찬성과 반대 의견을 설득하려는 말보다, 귀로 듣고 화합과 일치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각분과 예산안을 산정하여 10월말까지



제출과 동시에 각분과는 분과위원 2~3명을 구성해주시고 12대 사목위원회 회계년도를 1월부터 12월말로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많은 지출 예산안은 본당 연말에 수입과 지출을 정산해서 본당부채와 시설관리비, 제전비에 적용하여 사목위원회에서 재조정하겠습니다.'란 말씀과 기타 안건으로 600여만원 들어 성전 현 의자방식 제작설치와 데어케어 건물 3층을 정리 후 탁구장으로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어 사목회장의 선창으로 사목회의의 마침기도와 주임신부님의 축복으로 4/3분기 확대 사목위원회를 마쳤다.